

기독교 신앙, 그 진실을 시험하다



모든 것은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님께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대해 분명히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이 참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본질적인 사실들을 알려 드림으로써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젊은 세대와 지성인들 사이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긋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지만, 그 분의 ‘지상팀’인 교회에는 반감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는 분명 뭔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사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살아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2. 나사렛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가?
3.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쓰인 책인가, 아니면 단순히 인간이 만든 작품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러운 답이 존재합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억지로 설득하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확신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려는 방법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측이 담겨 있고, 이것을 '예언'(prophecies)이라 부르며, 그중 수백 가지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찾아보고,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중 일부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예언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언들 중에는 "메시아적 예언"이라 불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왔으며, 우리는 헬라어 형태인 "크리스토스(그리스도)"라는 말에 더 익숙합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구세주, 구속자, 기쁨 부음을 받은 자, 혹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메시아적 예언들에는 총 333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던졌던 세 가지 중요한 질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곧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과 일치하는 기독교 신앙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기독교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성경 속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들 가운데 수백 가지가 실제로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미래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를 생각해 봅시다. 일기예보는 앞날을 아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압, 온도, 바람 같은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계산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

들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예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년에서 1,500년 전에 여러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나중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선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선거 당일 아침에도, 누가 당선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뿐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그 응답을 바탕으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계산이지, 미리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성경 이사야서 46장 9~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예언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수 세기 전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예언이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진 사례

를 보여주는 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책을 찾은 사람에게 5천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한 한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책은 단 한 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그 누구도 조작하거나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과학은 이 예언들이 진짜임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증거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과 예언의 신성성이 더욱 힘 있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1. 수 세기 전부터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그것을 바

꿀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 역시 이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성경의 저자들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단순한 깊은 사색이나 우연의 일치로 예언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3. 모든 사람은 고유한 특징으로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면, 그 편지가 제대로 도착하려면 나라, 도시, 거리, 집 번호, 그리고 당신의 이름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333가지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만큼 구체적이고 독특한 '특징들'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특징들은 전 인류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즉 나사렛 예수 한 분에게만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서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 영원에까지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분명히 이해 가능한 구체적인 말씀이었고 마태복음 2장 3~6절에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헤롯…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가는 단순히 추측을 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7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나을 정도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기를 낳기 직전에 그렇게 힘든 길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조상 가문이 시작된 본적지로 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 인구조

사는 원래 더 일찍 시행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고,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 인구조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들의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조사는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윌리엄 램지 경(Sir William Ramsay)이 1923년에 발견한 로마의 비문에 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 그 시점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단순히 추측해서 맞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인간도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미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혹시 이보다 더 타당한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700년 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날지 예언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때도 세상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혹시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성경—특히 신약의 복음서들(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장 5절과 같은 표현을 자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바와 같으니…”

많은 성경책에는, 예언이 처음 기록된 구약 성경의 본문을 가리키는 참고 구절(관주)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관주들은, 우리가 예언과 그 성취 사이의 연결 고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자들이 친절하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놀랍도록 정교하게 서로를 설명하고 연결해 줍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모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예언은 최소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이전에 기록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살았고, 다윗은 약 1000년 전에 살았다는 점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신약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면, 예언 성취의 예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 ▶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입니다.
- ▶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 ▶ 한 선구자가 그분의 오심을 미리 알릴 것입니다.
- ▶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 ▶ 그분의 옷은 제비뽑기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 ▶ 그분의 뼈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 ▶ 그분의 옆구리는 찔릴 것입니다.
- ▶ 그분은 다른 이들을 대신해 죽으실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음)

이 모든 세부 사항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소개한 것들은 총 333개 예언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예언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이 땅에 오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레고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 개의 예언이 아니라, 단 50개의 예언만이라도 “우연히” 성취되었다고 가정해도, 그럴 확률은 1조 1,250조 분의 1, 즉 숫자로 표현하면 1:1,125,000,000,000,000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성경의 예언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벧후 1:19)

모든 메시아 예언들을 연구한 F. J. 멜다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영원하신 성령께서 이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완전한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눈먼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알게 되는 기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하고 이성적인 믿음의 토대가 되어 줍니다.

● 오늘의 요약

1. 살아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특히 예언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2. 수세기 전, 그렇게도 구체적인 예언을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유례없는 메시아적 예언들을 통해 검증된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은 신뢰해도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 14:29)

당신이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려 한다는 사실이 참 기쁩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 헬무트 하우바일

- ▶ 추천: **편지 6, 8, 9**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Letters to Andrew
- ▶ 문의: juheeyeon@gmail.com

memo

성경통신학교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앱스토어에 '성경통신학교'를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e-러닝 강의

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스마트 웹북

성경통신학교를 모바일 웹북으로 공부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Zoom)

각자 있는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줌(Zoom)으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e-러닝 강의와 스마트 웹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포인트가 쌓입니다(추천인 포인트 있음). 삼육몰과 시조사물에서 사용 가능



서적 신청(유료·무료)

편하게 홈페이지와 앱에서 서적을 신청하여 구독자 분들에게도 무료 서적을 보내세요.



성경통신학교
Bible Correspondence School

1670-5235
http://www.vop.or.kr/

